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3

■ 내부통제와 청렴윤리경영

2024 March

Vol. 135

내부통제 동향과 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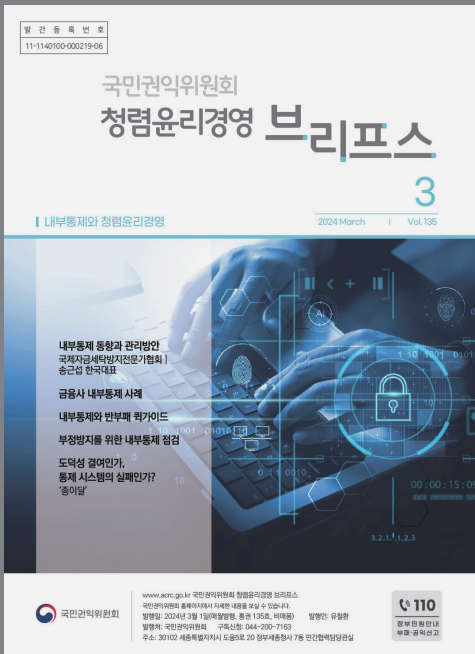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
송근섭 한국대표

금융사 내부통제 사례

내부통제와 반부패 쉼가이드

부정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

도덕성 결여인가,
통제 시스템의 실패인가?
'종이달'



COVER STORY

내부통제는 회사의 운영, 보고, 법규 준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 경영진, 회사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모든 절차로 정의되었으나 최근에는 컴플라이언스, 소비자보호, 내부회계, 정보보호, 리스크관리, 자금세탁방지 등을 모두 포함하며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넘어선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내부통제는 금융권에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는데, 최근에는 횡령,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 사건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지배구조법이 개정되는 등 내부통제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전문가 코칭	04
	내부통제 동향과 관리방안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송근섭 한국대표	
02	사례돌보기	07
	금융사 내부통제 사례	
03	보고서리뷰	12
	내부통제와 반부패 쿼가이드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2022.2.24), QUICK GUIDE SERIES 24: Internal controls and anti-corruption	
04	행동하는 윤리경영	16
	부정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	
05	문화 속 기업윤리	21
	도덕성 결여인가, 통제 시스템의 실패인가? ‘종이달’	
06	뉴스클리프	2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07	웹툰 윤리네켓	25
	청렴한 업무 수행	
08	행사소식	26
09	퀴즈	27



내부통제 동향과 관리방안

전문가 코칭

송근섭 대표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이번 호에서는ACAMS(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한국대표이자 KaAML(한국자금세탁 방지학회) 학회장인 송근섭 대표님의 인터뷰를 통해 내부통제 동향 및 실행과 부패방지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Q1〉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유념해서 살펴야 할 규제 동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개별 기업들이 내부통제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직원 개인의 일탈을 완벽히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 예방이 어렵다고 그 시도나 노력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내부통제 규제를 강화하는 동향으로는 ①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시행, ②이사회 책임 강화, ③경영진에 대한 개인 처벌 확대, ④AI 등 신기술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책무구조도 시행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제에 관련한 최근의 가장 큰 변화로 금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평가됩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서 운영하면 내부통제 업무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번째 동향은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 심의와 의결 사항에 포함되며 이사회에 ‘내부통제위원회(Internal Control Committee, ICC)’도 신설해야 합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를 하는 소위원회로 책무구조도와 함께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실패 또는 미흡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시 주주들의 이사들에 대한 민사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은 이사회 역할 강화로 내부통제를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번째,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경영진의 개인 처벌 확대 움직임입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동국제강 소액주주들이 장세주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강판가격 담합 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 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 집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입증책임의 전환’입니다. 기존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이 이사들의 감시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회사에 내부통제 시스템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형태로 입증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할 동향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내부통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내부통제 사고를 조기에 식별해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레크테크(Regulation Technology, RegTech)와 셉테크(Supervision Technology, Sup Tech)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기업은 변화하는 규제 동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Q2)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 또는 구축할 때 기업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내부통제 체계는 규정과 제도, 전담 조직과 인력, 내부통제 IT시스템, 독립적 감사, 임직원 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통제 업무를 중요한 기업 경영전략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 교육, 주기적 보고 및 경영진과의 소통을 통해 내부통제 업무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경영진이 내부통제 업무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며 지원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금년부터 금융회사가 도입하는 책무구조도를 일반 기업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를 직접 작성해서 운영하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인식되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내 내부고발제도의 적극적 운영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파격적 포상 제도 도입입니다. 이는 규정과 제도 및 전산시스템으로는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는 내부통제 영역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며, 내부고발제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발자의 보호, 명확한 절차, 적절한 조사,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위험기반접근법(RBA, Risk Based Approach), 임직원 교육 강화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독립감사 실시 등이 있는데 특히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조직의 건전한 내부통제 기업문화 정착에 핵심 요건입니다.



사례돌보기



사례돌보기

1.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는 신한금융그룹 계열의 생명보험사로 2023년 △이사회 △ESG경영 △최고경영자 △보수체계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의 항목으로 평가하는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아 2년 연속으로 지배구조 최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신한라이프의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경영진,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다. 조직별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신한라이프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을 통해 내부통제 정책 수립 및 주체간 협력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업무와 제도의 도입, 신상품 개발, 기초서류 및 대고객 안내자료, 그룹사간 내부거래 등에 관한 일상감시를 진행한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담당하며,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체계 운영을 총괄한다. 준법감시인은 법규 준수 측면에서 주요업무 사전검토,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는 준법감시팀이 부서별 ‘준법감시담당자’ 제도를 도입하여 부서 업무처리 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부분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전 임직원 대상으로 사고 예방 및 윤리 준법 관련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법규준수 자기진단을 통해 법규 및 규정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며,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임직원 행동기준 중 부패방지와 관련된 행동기준 조항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임직원 행동기준 예시(발췌)>

제2장 청렴과 정직

1. 업무관련 금품수수 금지

- 영업 또는 업무상 감사의 표시로 금품, 선물,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받을 경우 정중히 거절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수하거나 보낸 이가 불분명한 경우, 부서장 또는 준법감시 부서장에게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업무상 청탁, 압력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금품,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하게 상대방에 대해 선물, 접대 등이 필요한 경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적 통념’에 비춰 지나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개인적 영리활동 및 불법행위 금지

- 회사의 허락없이 타직(他職)에 종사하는 겸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서의 겸업행위나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외부강연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3. 투명한 경비 집행 노력

- 회사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해서는 안되며, 회사방침에 따라 반드시 목적에 부합되도록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영업경비는 올바르게 사용되고 명확히 증빙되어야 하며, 영업관행 명분의 부당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 증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위영수증 또는 타증빙을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이해 상충 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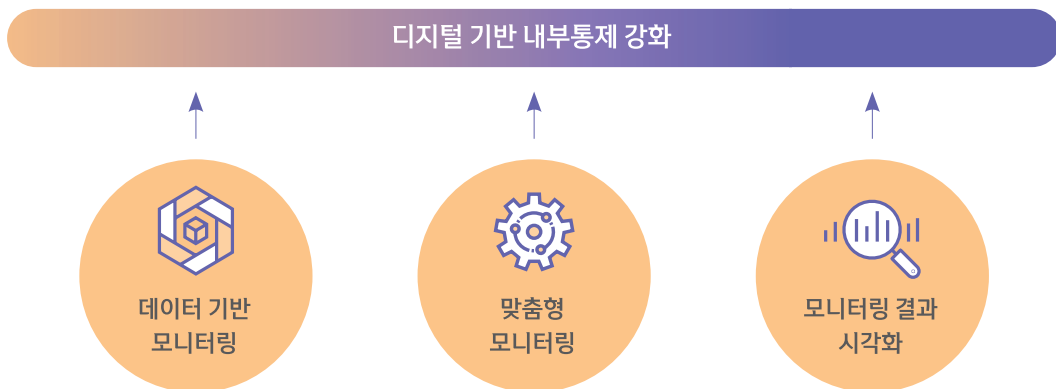
-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사적이익을 도모하거나 추구해서는 안되며,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회사의 이익이 우선되게 하여야 한다.
- 회사의 대외거래에 관여하여 임직원 개인이 계약 등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회사 거래의 성사를 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행해서는 안된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및 기타 유사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되며, 회사와 거래관계 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업체의 주식 취득 및 기타 사적인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출처: 신한라이프, 임직원 행동기준

이 밖에도 임직원 행동기준 제4장 임직원간 상호존중영역에서 금전거래 및 선물 제공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5장 법규준수 영역을 통해 고객정보 보호, 법규준수,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한 행동 기준을 명시한다. 한편, 신한라이프는 영업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인 내부통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내부통제 위험 징후를 파악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내부통제 조기경보시스템〉

조기경보 시스템 주요 특징



출처: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2021-2022 ESG성과보고서

2.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P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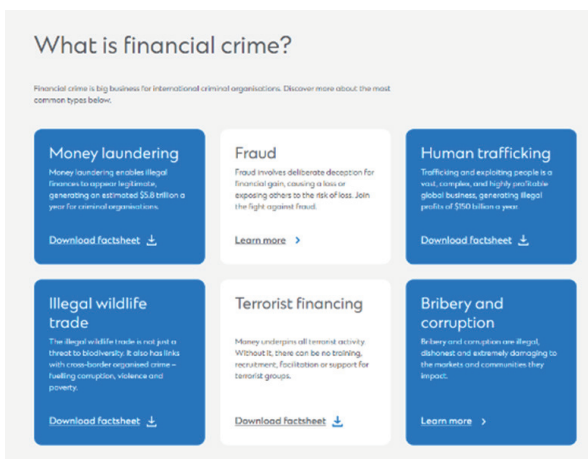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PLC)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금융기업이다. 2012년 불법금융거래로 기소되고 감사시스템 결함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1억 220만 파운드(약 1,700억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내부통제를 시스템을 강화 및 개선하고 있다.

2019년 영국의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스탠다드차타드를 자금세탁방지(AML) 통제에서 고객 실사 및 모니터링 관련 심각하고 지속적인 결함이 있음을 발표했다. 이러한 결함으로 스탠다드차타드는 자금 출처가 부족한 현금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고객 정보 검토와 실사가 미흡하여 리스크에 민감한 정책 수립 및 절차유지를 못했으며, UAE(아랍에미리트) 지사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통제를 영국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행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FCA는 스탠다드차타드가 제재 위반 위험에 노출되었고, 범죄 수익을 수령 또는 세탁할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았다.

스탠다드차타드의 결함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영국 बैं킹 사업과 2009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아랍에미리트 지점에서 발생했다. 이에 미국 당국은 스탠다드차타드 그룹에 대해서도 미국 제재 법률 및 규정을 중대한 위반 혐의로 조치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이러한 FCA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벌금의 30% 가 경감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자사 홈페이지에 ‘금융범죄와의 싸움(Fighting financial crime)’ 페이지를 별도 개설하여 부패 방지, 자금세탁 방지 등 기타 금융범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게시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 ‘Fighting financial crime’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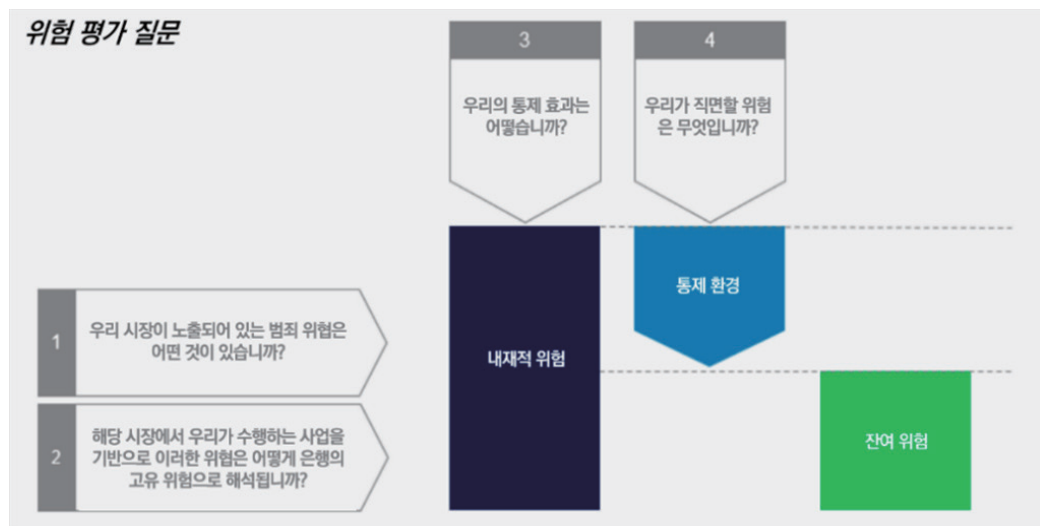


출처: 스탠다드차타드 홈페이지

2019년까지 ‘금융범죄와의 싸움’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Transforming a Financial Crime Compliance Programme: What We Learned(2019.12)’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전문가 영입, 인재 개발,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인식제고 캠페인 진행, 금융범죄를 파악하고 공론화하는데 기여한 직원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파이터’ 상을 신설하는 등 문화를 구축했으며, 이 프로그램 혁신의 일환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스탠다드차타드는 2018년 1월에 내부통제 프레임워크인 기업위험관리프레임워크(ERMF)를 출시 및 적용했으며 이사회에 의한 프레임워크의 효율성 검토를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운영 실패의 가장 큰 위험이 조직 내 여러팀 간의 양보(hand-offs)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역할, 책임(ownership)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명확 하도록 조치했다.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스탠다드차타드 위험 평가 질문〉



출처: 스탠다드차타드, Transforming a Financial Crime Compliance Programme: What We Learned(2019.12)

또한 기업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스탠다드차타드 그룹은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일상적인 활동에 ‘3차 방어선 모델(The Three Lines Of Defense)’을 적용하여 거버넌스 및 통제 환경을 강화한다.

3차 방어선 모델은 역할과 직무를 정의함으로써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으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와 감독과 지시 하에서, 조직 내의 3가지 분리된 그룹(또는 방어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각

방어선은 조직의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구분된 역할을 담당하며, 각 방어선이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때,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3차 방어선 모델은 다음과 같은 기능 및 역할로 구성된다.

- 1차 방어선: 영업, 업무 수행과정 일선에서 위험에 직면하여 이를 직접 관리하는 방어선을 의미
- 2차 방어선: 1차 방어선에 있는 자들의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통제 라인을 의미하며, 위험과 문제를 식별, 모니터링하고 그룹 최고 리스크 책임자 (GCRO, the Group Chief Risk Officer),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함
- 3차 방어선: 내부 감사인이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독립적으로 파악하여 이사회나 고위경영진에게 1, 2차 방어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보를 제공

한편, 스탠다드차타드는 2024년 실행계획을 통해 향후 입법 및 기업 거버넌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록 적절성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2021-2022 ESG성과보고서
- 신한라이프, 임직원 행동기준 | <https://www.shinhanlife.co.kr/hp/cdhh0090.do>
- 스탠다드차타드 홈페이지 | <https://www.sc.com/en/>
- 스탠다드차타드 'Fighting financial crime' | <https://www.sc.com/en/about/fighting-financial-crime/>
- 스탠다드차타드, 2023년 연례보고서
<https://av.sc.com/corp-en/nr/content/docs/standard-chartered-plc-full-year-2023-report.pdf>
- 스탠다드차타드, Transforming a Financial Crime Compliance Programme: What We Learned(2019.12)
- 박세화, 준법 및 윤리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의 새로운 과제 -사기, 사이버 위험 등의 집중 관리 및 기업집단의 내부통제체제를 중심으로-(2017.07)
- COSO, Leveraging COSO Across the Three Lines of Defense(2015)
- FCA, "FCA fines Standard Chartered Bank £102.2 million for poor AML controls"(2019.4.9)
<https://www.fca.org.uk/news/press-releases/fca-fines-standard-chartered-bank-102-2-million-poor-aml-controls>
- SBS biz, "신한라이프, 지배구조 최우수기업으로 선정"(2023.11.27) |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5945>
- 매경이코노미, "40살 SVB는 36시간 만에 몰락했다"(2024.2.16) | <https://www.mk.co.kr/economy/view/2024/118936>
- 뉴스케이프, "황령에 배임까지...잇따른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도마"(2024.3.4)
<https://www.newsca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62>



내부통제와 반부패 퀵가이드

■ 보고서: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 Quick Guide Series24: Internal controls and anti-corruption(2022)



바젤거버넌스연구소(Basel Institute on Governance)는 2003년 스위스 바젤에 설립된 거버넌스 강화와 부패 방지를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독립적인 국제 비영리 조직이다. 바젤거버넌스연구소의 ‘Internal controls and anti-corruption(2022)’는 내부통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내부통제 업무의 개요와 사례를 제시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성공 요인을 다루고 있다. 청렴윤리경영 담당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내부통제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통제

내부통제는 일반적으로 문제, 오류 및 부정행위를 예방, 감지 및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관행의 시스템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통제 시스템은 부패행위 해결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근태 불량 등 조직의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는 재무제표, 정부, 상업적 시장활동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일하는 거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이는 문제의 발견과 해결 외에도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서류작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규정, 행동강령 같은 명문화된 정책과 절차는 대중과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중요하나 부패는 공식적인 규칙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패 위험 완화를 위한 내부통제 전반적인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공식적 규칙과 절차 외에도 비공식 멘토링, 교육 등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활동과 같은 비공식적 관행을 포함한다. ‘올바른’ 통제와 대응은 조직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지므로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발에 엄격한 규칙이나 그대로 적용되는 템플릿은 없다.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예시를 들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의 예〉

구분	내부통제 시스템 요소 및 예시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 조작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는 간단하게는 증거 보관실 문을 자물쇠로 잠그거나 증거물에 대한 주기적인 재고 조사와 보관실에서 법정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적 시스템을 갖추는 등 복잡한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수집 및 전달하는 내부통제는 잠재적 부패를 탐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내부고발 및 보고시스템은 조사에 필요한 단서나 법집행기관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명백한 ‘대응’의 한 종류다. - 그러나 기업은 성공 또는 실패 사례로 ‘교훈을 배우는’ 토론을 시행할 수 있다.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석하는 것은 기업과 직원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 긍정적 통제가 될 수 있다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기업에는 내부 감사부서, 내무부, 컴플라이언스 부서, 내부 감사관실 또는 이와 비슷한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부서는 올바른 정책, 절차, 표준 및 지침 마련 여부, 강령이 실제로 준수되는 정도를 확인한다. 잘 운영되는 조직에서는 내부 감사부서가 높은 독립성을 가지고,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직에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권고 사항을 개발하는 데 능숙하므로 컴플라이언스 및 인사부서와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그러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은 내부통제 부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조직이 매일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한다.

내부통제의 성공 요인

내부통제의 부패방지 효과는 측정하기 어려우며 모든 내부통제 시스템은 효율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가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내부통제의 5가지 성공요인〉

1. 내부통제 책임자의 독립성

- 외형적 독립성과 실질적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 원치 않는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를 의미한다.

2. 통제 수행에 대한 직원 동의(buy-in)

- 내부통제가 왜 가치 있는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지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소통이 중요하다.

3. 비용 대비 편익

- 통제에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면 사람들은 이를 회피할 것이다.
(예: 소액 현금을 요청하는데 지나치게 상세한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4. 실제적이고 일관된 처벌(consequence)

- 부패행위가 드러나면 위반자를 적절하게 처벌해야 한다.
- 위반자의 타부서 이동은 추가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선을 위해 수정, 교육을 권고할 수 있다.

5. 신뢰할 수 있는 보고채널

- 직원들이 보거나 느낀 잘못된 점에 대해 경고를 하거나 업무방식 개선에 대해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식적 보고채널의 형태는 소박한 '제안상자'부터 '익명의 내부고발시스템'까지 다양하다.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문제제기 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발언권 문화'를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는 교육, 자체 평가 등의 도구, 기술을 통한 사건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관리, 추적 및 감사 지원 등이 있다. 내부통제 담당자가 다른 조직 및 국가의 담당자와 아이디어 및 모범사례를 교환할 수 있는 멘토링 등의 기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

-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 Quick Guide Series24: Internal controls and anti-corruption(2022)
- Business Integrity Society, [동향] 내부통제와 반부패
<http://unglobalcompact.kr/%EB%8F%99%ED%96%A5-%EB%82%B4%EB%B6%80-%ED%86%B5%EC%A0%9C%EC%99%80-%EB%B0%98%EB%B6%80%ED%8C%A8/>



행동하는
윤리경영

부정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



내부통제시스템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회사가 성과와 이익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만약, 기업의 내부통제가 촘촘하게 구축되었다면 부정행위자가 횡령 등 부정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 어려우며, 사고발생 가능성도 낮아진다. 어떤 시스템도 부패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고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원 부족, 불분명한 가치와 방향 또는 불리한 사회 경제적 조건과 같은 광범위한 시스템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와 실제로 발생하는 것 사이의 구현 격차(Implementation gap)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감사원의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2023.10)’은 공공조직의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 실행을 지원한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이 내부통제를 구축함에 있어 설계 및 운영 효과성 평가와 목적 달성에 활용하도록 개발되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조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내부통제의 기본적 개념과 세부 원칙 및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어 공공조직이 아닌 기업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내부통제의 주요 구성요소와 이를 부정방지를 위해 기업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제 환경, 리스크 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5가지 구성요소가 필수적이다. 이들 5가지 구성요소는 효과적으로 설계, 실행, 운영되어야 하며 서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는 감사원의 보고서와 바젤거버넌스연구소(Basel Institute on Governance)의 Internal controls and illegal wildlife trade (2023.2)보고서를 참고하여 내부통제의 핵심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내용이다.

〈내부통제의 5가지 핵심요소〉

구성요소	
통제환경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을 말한다. 효과적인 내부통제 작동의 기초로서 윤리를 실천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임무 및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규율과 구조를 제공한다.
리스크 평가	조직이 목표를 달성을 추진함에 있어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체계적으로 식별 및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통제활동	목표를 달성하고 식별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통제활동은 예방적 또는 사후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공공 조직의 경우, 식별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 이내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절차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 내에 설치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정보 및 의사소통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개발, 운영, 평가, 개선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내외부에 소통한다. 예를 들면, 직원이 이해하기 쉬운 지침, 신뢰할 수 있는 기록(사례 관리 시스템, 검색 가능한 자산 신고 또는 물리적 증거 등록부 등), (투명성 및 모니터링을 위한)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 등이 있다.
모니터링	조직이 통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최고관리자가 성과의 질적 수준을 시계열적으로 측정하고 감사 및 다른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구축, 운영하는 활동이다. 모니터링은 성공 사례를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조기 경고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과가 평가된다는 사실을 직원과 팀이 알게 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와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감사원의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내부통제시스템의 5개 구성요소(통제환경, 리스크 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에 대응하도록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부정방지 거버넌스, 부정위험 평가, 부정위험 통제활동, 부정행위 조사 및 조치, 부정위험관리 모니터링 등 5개 요소로 구성하여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다음은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내용과 체크리스트를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부정방지 프로그램〉

구성요소 및 핵심내용	체크리스트
부정방지 거버넌스 기관장/관리자의 기대와 의지를 반영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수립, 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이 부정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조직 운영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가 • 부정부패방지정책, 윤리강령, 행동강령, 성희롱 방지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부정위험 평가 구체적 부정행위와 리스크를 식별하는 평가를 수행하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며, 관련 통제활동을 평가하고, 잔여 부정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위험 취약분야 및 부정 유형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가 • AI를 비롯한 IT 환경, 인력 구성의 변화, 정치 양극화 등 조직의 내부 및 외부 환경변화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가 • 예산관리, 계약, 인허가, 보조금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부정위험 평가를 통해 고유 리스크와 잔여 리스크를 각각 관리하는가
부정위험 통제활동 부정행위의 발생 또는 발생한 부정행위의 적발되지 않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예방·적발·교정 통제활동을 선정·개발·적용	[예방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채용 시 청렴성과 공직윤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가 •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부정위험 교육을 직급별 맞춤형으로 차별화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취약업무에 대한 직무순환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가 • 직무분리, 승인절차를 비롯한 기본적인 내부통제 수단이 적용되고 있는가 •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부정사례 예측모델을 사용하고 있는가 • IT 기반의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가 • 일상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통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적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부패행위 신고가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접수경로가 구축되어 있는가 • 내부감사 수행 시 부정위험 가능성을 고려하는가 • 조직 내 발생 가능한 부정 유형과 시나리오가 축적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부정의심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있는가

<p>부정행위 조사 및 조치</p> <p>잠재적 부정행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의사소통 절차를 확립하고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적 접근방법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가 적시성 있게 실시되고 있는가 •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 부정사례를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고 있는가 • 위법 및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처벌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는가 • 부정으로 인해 발생한 공적자금 손실에 대해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가 • 부정사례 분석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의 취약점을 도출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p>부정위험관리 모니터링</p> <p>부정위험관리 프로그램이 실질적이고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개발·적용하고 프로그램 미비점 발견 시 기관장, 관리자, 담당부서가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시성 있게 모니터링 결과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방지 프로그램에 대해 주기적으로 독립적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가 • 적발된 부정사례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는 부정위험 우선순위 조정, 개선조치, 교육자료로 연결되고 있는가

출처: 감사원,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2023.1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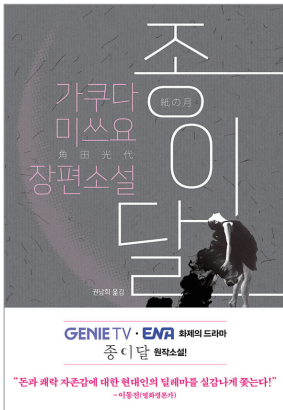
- 감사원,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2023.10)
- 바젤거버넌스연구소(Basel Institute on Governance), Internal controls and illegal wildlife trade: A systemic approach to corruption prevention and law enforcement integrity (2023.2)
- 삼일PWC, "Audit Committee Library: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https://www.pwc.com/kr/ko/insights/acc/samil-acc_14_risk-management-and-internal-controls.pdf
- DBR, "내부통제만으로 부정 예방 어려워, 디지털 감사·포렌식으로 적극 대응해야"(2023.1)|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10705/ac/magazine



문화 속
기업윤리

도덕성 결여인가, 통제 시스템의 실패인가?

소설 '종이달'



*이미지 출처: 위즈덤하우스

소설은 고객의 예금 1억엔을 횡령한 주인공이 태국으로 도주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평범한 주부였던 리카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고객의 은행 업무를 대신하고 상품 가입을 권하는 업무로 은행에 재취업을 한다. 업무가 익숙해질 때쯤 리카의 일탈은 횡령으로 이어진다. 횡령은 '적은 금액, 짧은 시간'부터 시작된다. 고객의 돈을 갖고 사무실로 향하던 때 동행해야 하는 동료가 없자 잠시 '5분쯤이면 어때'하는 마음으로 화장품가게에 들린다. 그날의 업무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으니 무료 피부진단을 받고 샘플만 받아가려 했지만, 5만엔 가까이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그렇게 지니고 있던 고객의 돈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사무실로 되돌아 가는 길에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들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5만원을 찾아 봉투에

되돌려 놓는다.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리카는 어떤 죄책감도 들지 않는다. 그러나 리카의 횡령은 점점 금액이 커진다. 언젠가 다시 채워 놓을 생각으로 예금증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범치는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체 모를 만능감'에 사로잡힌다. 은행에서는 고객 예금을 유치할 때는 2인이 함께 다녀야 하는 '원칙'과 직원의 돈 씹씹이가 헤프지는 않은 지, 돈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은 지 정도의 '자발적 감시'라는 미약한 내부통제 체계만 작동한다. 또한 본점 경리부의 감사는 정기적으로 혹은 원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마다 하지만, 리카의 부정은 정기에금증명서 발행이어서 단순히 출납으로는 은행 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국 리카는 은행에서 발각이 되기 전에 도주하기에 이른다.

2020년 2천억원이 넘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의 횡령, 2022년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의 697억 횡령,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의 46억원 횡령 등 큰 규모의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횡령한 돈을 투자나 호화생활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나 이런 금융사고가 개인의 책임으로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 내부통제가 엄격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에서조차 이러한 사건이 발각된 것을 보면 기업에서의 내부통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기업에서는 횡령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자금통제 프로세스, 자금거래 모니터링, 데이터 검증 등의 다양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정 위험 방지를 위한 노력이 꾸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 개인의 부정을 가능하게 하는 빈틈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자정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부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다.



뉴스클리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민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4일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고,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하여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3월 6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67261

국민권익위, 맞춤형 진단과 처방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끌어올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부터 종합청렴도 저조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청렴컨설팅은 부패 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 반부패 지원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컨설팅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다. 이번 청렴컨설팅에서는 종합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컨설팅 신청을 받아 각 기관의 청렴정책 추진의지, 컨설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등 24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대구광역시 등 종합청렴도가 높은 12개 멘토기관을 선정하여 24개 멘티기관에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수시책과 추진 경험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은 3월 7일 청렴연수원에서 개최된 청렴컨설팅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반부패역량 진단 ▲국민권익위-멘토·멘티기관-반부패 전문가와 함께 하는 자문회의 ▲그룹별 자유회의 ▲워크숍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진행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3월 7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67411

국내외 동향

IESBA, ESG 공시 인증 윤리기준 초안 공개... "글로벌 기준선 필요"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공시 기준 제정과 함께 공시 내용에 대한 인증에 적용될 기준을 재정비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회계감사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만드는 기구인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1월 29일 ESG공시와 공시 인증에 관한 2개의 새로운 윤리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지속가능성 인증을 위한 국제윤리기준(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과 ▲외부 전문가 활용(Using the Work of an External Expert)의 2개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IESBA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인증을 위한 국제윤리기준'에 관한 의견 수렴은 오는 5월10일,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의견 수렴은 오는 4월30일까지다. IESBA는 이번에 공개한 윤리기준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SB)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IESBA에 따르면 이 기준은 "회계사뿐 아니라 직업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실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윤리 규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 활용' 기준은 회계사나 다른 인증 업무 종사자가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역량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외부 전문가 활용 시 이 기준 적용을 돕기 위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IESBA는 윤리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에 맞춰 전 세계인정기구의 협의체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설립된 민간 국제기구인 국제인정기구포럼(IAF)가 세계 각국의 인증 기구가 IESBA의 윤리기준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 ESG경제 2024년 1월 30일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1>

EU 자금세탁방지기구 내년 프랑크푸르트에 신설

유럽연합(EU) 내 자금세탁과 금융 제재 회피 시도를 단속하기 위한 기구가 내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개소한다. 2월 23일(현지시간) EU 상반기 순환의장국 벨기에 정부에 따르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전날 오후 회의에서 신설될 자금세탁방지기구(AMLA)의 소재지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AMLA는 400명 규모로 내년 중순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AMLA 신설은 2021년 EU 집행위원회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패키지의 일부로 AMLA가 중앙기관으로서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대한 직접 감독은 물론 처벌 권한도 갖게 돼 규제 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EU는 기대한다. 금융 제재를 우회하는 행위도 적발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간 EU에 별도의 권한이 없는 데다 EU 회원국별로 이뤄져 단속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AMLA가 자금 세탁과 전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4년 2월 2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3143200098>

ISSB, 각국 ESG 공시기준 도입 지원...관할권 가이드 제공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만든 ESG 공시기준을 도입하거나, 이 기준을 활용해 ESG 공시기준을 만드는 나라의 규제 당국을 위한 기준 도입 가이드(jurisdictional guide)가 올해 상반기 안에 제공된다. 이 가이드는 올해 첫 발간되고 앞으로 ISSB가 ESG 공시기준의 범위 확대 계획 따라 3년 후 개정될 예정이다. ISSB는 관할권 가이드 발간과 함께 ISSB 기준을 채택하는 나라와 ESG 공시기준을 만드는데 ISSB 기준을 활용하는 나라의 규제당국, 기준 제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공시기준 제정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ISSB는 구체적인 지원 전략으로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비례성 메커니즘 ▲기업이 ISSB 기준을 적용해 공시하는 첫 해에 일부 기준 적용 유예 ▲각국 규제당국이 ISSB 기준 차용이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할권 가이드 발행 ▲교육 및 공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추가적인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중 비례성(proportionality) 메커니즘은 ESG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할 때 측정 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확성보다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ISSB는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치 않은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고, S1과 S2 공시에서 정량적인 지표 공시가 어려울 경우 정성적인 서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관할권 가이드에는 ISSB 기준의 단계적 도입과 같은 유연한 접근법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된다. ISSB는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뢰는 규제의 건전성과 국제적인 원칙과 기준,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 낸 검증된 운영방식)와 관련이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준을 도입하는 나라의 기업은 국제 자본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자와 자본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ESG경제 2024년 2월 27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8071?sid=101>

30대 기업 거버넌스 핵심지표 준수를 개선..."집중투표제 미미"

한스경제가 국내 시총 30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고서를 공시한 25개사(금융권 5개사 제외)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평균 83%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준수율(79%)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로 국내 시가총액 30대 기업(2023년 말 기준)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최근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기준이 강화되면서 준수율이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중투표제 채택률은 여전히 낮았다. 지배구조 보고서는 의무공시,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보고서에는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필요한 핵심 지표 1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핵심지표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3가지 분야로 나뉜다. 이사회 분야 준수율이 74%로 가장 낮았다. 반면 감사기구 분야는 93%로 가장 높았다. 다만 '집중투표제 채택' 준수율은 16%로 현저히 낮았으며 대부분 기업은 집중투표제를 정관상 배제했다. 단순투표제와 달리 집중투표제는 이사 후보 추천이나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 입장에서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도입을 꺼리고 있다. 그 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는 전체 60%가 준수하지 않았다. 이사회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기업들은 책임경영을 위해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스경제 2024년 3월 14일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4170>



웹툰

청렴한 업무 수행

윤리네컷





행사소식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의거하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을 실시, 청렴윤리경영 우수기업사례를 모집한다.

주최 산업정책연구원, 윤경ESG포럼

공모기간 ~ 2024년 3월 25일(목)

시상내역 최우수상 1점(국민권익위원장상 예정), 우수상(윤경ESG포럼 회장상) 3점

공모분야 윤리경영 실천(투명한 기업철학, 윤리경영 체계, 글로벌 확산, 윤리경영 문화확산)

참고 https://www.ips.or.kr/02_01_view.php?idx=35510&page=

IFRS Foundation Conference 2024, London

새로이 발표될 IFRS 회계 기준(IFRS 18)에 대한 주요 정보와 두 개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발표된 지 1년 동안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주최 IFRS Foundation

일정 2024년 6월 24일(월)~6월 25일(수)

장소 영국, Leonardo Royal Hotel London, Tower Bridge

참고 <https://www.ifrs.org/news-and-events/events/2024/june/ifrs-foundation-conference-2024/>





Q. 다음 중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중장부를 이용한 자금거래 기록
- ② 내부통제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 ③ 적절하고 유효한 데이터 확보
- ④ 임직원 내부통제 행동기준 구축 및 배포

퀴즈 응모 2024년 4월 5일(화)까지

- (1) '응모하기' 페이지(<https://quiz.assist.ac.kr>)에서 응답하시거나
- (2)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 앞으로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 호 정답자는

박○희님, 박○희님, 김○슬님, 강○옥님, 오○희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 | |
|----------|--------------------------|
| ① 상담신청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 ② 상담관지정 |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 ③ 사실관계조사 |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 ④ 결과확인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

